

70인 제자들을 향한 전도자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 -복음으로 여는 디모데후서- 열왕기하 2:8-9, 디모데후서 4:1-2

정윤돈 목사님

* 왕하2:8-9 엘리야가 겹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 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 디후4:1-2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우주만물을 창조하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주시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불신앙, 불순종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시켜 주시고,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와 선교의 특권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치유받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교회와 후대와 주를 위하여 바칠 수 있는 70인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후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로 하겠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 갑절의 성령의 역사(영감)를 구하였다. 갑절은 두 배의 축복을 의미한다. 요셉의 가문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 두 배의 축복은 장자의 축복을 의미하며 그리스도의 축복을 말한다. 엘리사가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축복인 것이다. 잘 모르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축복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이다.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이와 같이 스승을 이은 남은 자 램넛들이 없었다면 복음의 역사는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우리도 이 말세지말 시대에 7대 연약적인 흐름과 RU와 RUTC 운동을 통하여 성경적 전도운동의 시스템을 셋팅하여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하겠다. 이때 가장 중요하게 참고해야 할 말씀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인 디모데후서일 것이다.

1. 첫 번째로는 Nobody의 현장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Nobody의 현장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다. 이 Nobody의 현장이란, 사탄흑암세력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현장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역사하고 있는 상황을 의미한다.

(1) 사도 바울을 배신한 성도들도 많이 있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여러분의 이름은 우리 교회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2) 그리고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디모데후서 2장 16에서 17절 말씀이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중앙(암)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매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교회에서 옳은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서는 살리는 말을 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옳은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죽인다.

(3) 이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말세에 나타날 Nobody의 현장에 대해서 자세히 열거해 주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19가지 말세의 현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복음 없는 Nobody의 현장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현장을 보면 ‘고통하는 때’라고 말하고 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자신을 사랑하며’ 창세기 3장,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6장, ‘교만하며 비방하며’ 창세기 11장 문제이다. 성경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도응답의 비밀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는다. 우리는 실력과 능력, 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것이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과 기도로 하는 것이다.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 경건의 능력이 진정한 능력이다.

(4) Nobody의 현장이란 복음과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장을 의미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이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복음)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물질, 돈, 성공 등)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말씀)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정치, 경제, 이념 등)를 따르리라” 말씀이 없고 전도현장이 없으니까 허탄한 이야기만 하는 것이다.

(5) 사도 바울은 Nobody의 현장에 빠져버린 또 다른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름을 거명하고 있다. 4장 10절, 14절에서 15절이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교회 안에도 세상에도 항상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를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현장에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많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다 양보했는데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다. 방법이 달라야 한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악의 한계가 있다. 선으로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흑암을 꺾고, 기도해주면 되는 것이다. 우리는 피할 사람들은 피하고, 많은 사람들을 함께 살릴 복음과 삶이 되어진 제자들을 찾아야 하겠다. 여러분이 그 한 제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다.

2. 두 번째로 Everybody의 현장이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Everybody를 살리기 위한 실천미션을 주셨다. 그 미션들을 디모데후서 본문 내용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

(1)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든 현장을 살리는 남은 자 70인이 되려면 부모님과 교역자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2)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는 “청결한 양심”을 소유한 믿음의 청년이었다. 렘넌트들의 당연한 모습이다. 깨끗하기만 해도 쓰임 받을 수 있다.

(3) 1장 5절에 보면 디모데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소유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 믿음의 뿌리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보겠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부모와 조부모의 신앙이 너무나 중요하다. 영적인 유산을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4) 2장 1절 말씀에 보면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오직 예수로 끝내고 오직 예수로 완전, 충분, 모든 것이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내 아들이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능력과 지식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오히려 나의 부족한 부분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라오게 되어있다.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된다.

(5) 남은 자 70인 제자는 또 다른 70인 제자를 찾아서 복음을 부탁해야 한다. 이 때 진정한 복음의 플랫폼과 파수망대와 영적인 안테나가 셋팅될 수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보겠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어서 사도 바울은 2장 전체를 통해서 70인 제자들이 실천해야 할 여러 가지 미션의 말씀을 주셨다. 2장 21절에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였다. 2장 22절에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2장 23절에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말씀하고 있다.

(6) 그러면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 교단에서는 7대 언약적인 흐름인 7대 메인스트림(큰 흐름)을 통하여 최고의 훈련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훈련의 결과, 우리 교단의 최고의 특징은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한다.

(7) 다음으로 3장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신학과 복음의 전통은 예수님, 사도 바울, 장로교 그리고 우리 개혁신교단과 참사랑교회로 전달된 것이다. 이 전통을 잘 알아야 한다. 그래서 70인 제자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특히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때 교회를 살리는 다락방과 지교회의 메신저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8) 또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는 성경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 3장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어서 성경의 8가지 내용과 역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

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구원의 길, 복음소식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다. 우리의 절대 목표이다. 황폐한 Nobody의 현장을 남은 자 70인의 현장인 Everybody의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의 내용과 역할들을 정확히 알아야하는 것이다. 성경 안에는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직접 읽는 것이 중요하다.

(9) 사도 바울은 남은 자 70인들에게 전도에 대하여 권면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전도캠프의 기준, 수준, 표준이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모든 전도 캠프팀들과 지교회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하겠다. 24시간 복음, 전도, 선교를 위해서, 이 말씀이 Everybody를 살리기 위한 최고의 말씀이다.

(10)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4가지를 권하고 있다. 4장 5절이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당연, 필연, 절대적인 것을 찾아서 하라는 것이다. 대중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야 한다. 꼭 필요한 부분을 미리 앞당겨서 응답받는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을 잘하면 된다.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CVDIP를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다.

1. Covenant, 언약이다. 우리들의 언약은 우리들 자신이 디모데와 같은 남은 자, 70인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본다면 가능한 것이다.

2. Vision, 비전이다. 우리들의 평생 절대목표는 237나라 5천 종족들에게 정확한 복음과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를 정리하여 전달하는 것이다.

3. Dream, 꿈이다. 만약 우리들의 24시간 사도 바울의 심정으로 70현장을 바라본다면 우리들의 모든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4. Image, 이미지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에덴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300영접, 30다락방, 3지교회를 위해 조금만 집중해도 영원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5. Practice, 지속적인 실천이다. 이번 주는 사도 바울처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인지 정리해보시기를 바란다.

오직복음, 완전복음, 영원한 복음을 셋팅하기 위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정리하고 실현하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70인 제자, 전도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 어떤 언약을 전달해야 할지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주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과 후대를 통해서 현장에 그대로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